

서울형 생활임금제, 물가변화·가구형태 등 대비 개선 필요

서울研, 합리적 산정식 등 보고서
민간-공공 격차 최소화 힘써
본청·자치구 간 격차 줄여야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 생활임금이 법적 한계로 민간 확산에 난항을 겪고 공공부문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 한계를 보여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발행된 '서울형 생활임금제, 합리적 산정식·민간 확산 유인책 개선 검토' 보고서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비·교통비·교육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이다. 저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의 생활 여건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시민단체와 사회의 요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2015년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2015년 도입 후 2020년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고 금액을 올리는 데 집중했다. 2020년 이후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겪으며 이전과 같은 맹목적인 금액 인상보다 최저임금과 격차를 줄여 민간-공공부문 간 차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2015년 6687원, 2016년 7145원, 2017년 8197원, 2018년 9211원, 2019년 1만148원, 2020년 1만523원, 2021년 1만702원으로 결정됐다. 최초 도입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가계 부담을 더는 것에 초점을 맞춰 전국을 선도하는 수준에서 정해졌다. 특히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에도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됐다.

이후 시 생활임금은 2022년 1만766원, 2023년 1만1157원, 2024년 1만1436원으로, 2022~2024년에는 다른 광역시·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시의 생활임금액이 높은 수준을 고수하기보단 이 제는 자치구 간 격차 및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의 형평성 문제,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적용 대상자를 유지 또는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라는 입장이라고 연구진은 밝혔다.

연구진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생활임금의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생활임금은 대체로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따르면서도 급격한 변동의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됐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는 2015년 1107원, 2016년 1115원, 2017년 1727원, 2018년 1681원, 2019년 1789원, 2020년 1933원, 2021년 1982원, 2022년 1606원, 작년 1537원, 올해 1576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생활임금 비율은 각각 120%, 118%, 127%, 122%, 122%, 123%, 123%, 118%, 116%, 116%이다.

연구진은 당초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고 이것이 민간으로 범위를 넓혀가면서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상승시키리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도입 초기와 달리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됐고, 법적 강제력이 없어 민간부문에 확산시킬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유인책으로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간 차액 지원 ▲생활임금 적용 기업에 상수도 요금 인하 및 지방세 감면 혜택 제공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등을 연구진은 제안했다.

연구진은 물가변동에 따른 충격 완화와 다양한 가구형태에 대비한 산정식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연구진은 "생활임금 산정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생활임금의 급격한 변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완충 장치뿐만 아니라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경기가 침체되거나 노동시장이 나빠지면 분화된 가구의 유입이 증가하는데 이에 대응한 생활임금 산정식 개편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역 광장 공간구상 국민 아이디어 공모

마스터플랜 수립... 상금 1900만원

서울시가 GTX-A·B 광역철도 확충, 철도 지하화 등의 변화를 앞둔 서울역과 광장 일대 공간 활용 방안을 제안 받는다.

서울시는 이달 3일부터 내달 5일까지 '서울역 공간구상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서울역은 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 중심역으로 일 평균 약 30만명이 이용하는 곳이나, 현재 대규모 판매시설과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해 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공모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서울역과 광장 일대를 서울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시민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역 공간 대개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시는 서울역과 광장의 공간 활용 및 미래모습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기로 했다. 국가 중앙역으로서 서울역의 상징성, 시민 중심의 서울역 광장 조성 및 일대 경관 개선, 주변 지역과 연계한 보행 네트워크 구상이 핵심이다.

시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 후, 창의적인 공간 기획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공모 주제에 부합하는 아이디어를 글, 그림, 사진 등 표현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12일 선정작을 발표할 방침이다. 서울특별시장 명의 대상 1점을 포함해 20여점을 선정하며, 총상금은 1900만원이다. 작품 출품 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모 누리집(<https://project.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할랄시장 수출판로 개척 본격화

경기FTA센터, 821만 달러 수출 상담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 수출상담회를 진행한 결과 총 139건의 비즈니스 상담(821만 달러 규모)을 진행했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아세안 주요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국가를 전진기지로 삼아 뷰티·농수산·식품업 등 해외인증 준비 및 취득 기업 대상으로 할랄시장 수출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한-GCC(걸프협력이사회) FT

A 타결 등 이슬람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최근 각국의 해외규격인증 요구 등 비관세장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양 지역에서 진행된 수출상담회에 뷰티·농수산·식품업종의 10개 사가 참가했으며 그 결과 인도네시아에서 69건의 상담으로 521만 달러 수출상담실적 및 159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와 5건 54만 달러의 현장 계약추진 실적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70건 상담으로 299만 달러 수출상담실적 및 89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각각 거뒀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범죄 취약 1인 점포에 '안심경광등' 무료 배포

서울시는 범죄에 취약한 1인 점포에 경찰 신고까지 연계되는 '안심경광등'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의 점멸등이 켜지면서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자치구 관제센터는 인근 CCTV 등을 확인한 후 가게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게 된다. 가게와 가장 가까운 경찰이 신고를 받게 돼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총 5000개 점포에 안심경광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내 1인 가게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종양·혈액·심혈관·면역질환' 바이오 혁신 기업 발굴·지원

서울시, 한국BMS제약 등과 맞춘 디지털헬스·신경과학 등 9개 기술

서울시는 글로벌 제약사인 한국BMS제약,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2024서울-BMS 이노베이션 스퀘어 챌린지'를 열고 바이오 및 디지털헬스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찾았다고 2일 밝혔다.

1887년에 설립된 미국 제약사 BMS(Bristol Myers Squibb)는 지난해 매출 61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글로벌 제약사 순위 9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챌린지는 환자의 삶을 변화시킬

혁신 기술을 가진 10년 미만의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모집 분야는 ▲종양질환 ▲혈액질환 ▲심혈관질환 ▲면역질환 ▲신경과학 ▲중개의학 ▲세포치료 ▲디지털헬스 ▲연구조사기술 총 9개다.

2개 기업을 선정해 4000만원의 연구 지원금을 지급하고 전문가 멘토링, 국제 네트워크 형성,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시는 선정된 기업에 바이오의료 창업 플랫폼인 서울 바이오허브에 입주할 기회와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6월 3일 (월)
음력 : 4월 27일

수도권 날씨
16~28°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5:12 | 해질 / 19:49

지역별 날씨: 연천 12/27, 동두천 13/28, 가평 12/27, 파주 13/27, 서울 16/28, 양평 14/27, 인천 16/26, 수원 15/27, 용인 15/27, 평택 13/2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日, 초계기 갈등 회담서 육일기 인정 요구...韓 반대에 '양보'"
▲ 멕시코 대선 개막...첫 여성 대통령 배출 유력 /사진 뉴시스

▲ WHO 회원국들, 세계보건회의서 팬데믹 조약 결성 1년 연기
▲ 중국 달 탐사선 창어6호 2일 새벽 달 뒷면 착륙 성공



▲ 반도체·車 쌍끌이에 對中 수출 ↑... 무역후자 41개월만에 최대
▲ 젤렌스키, 싱가포르 깜짝 방문...평화회의 참석 요청할듯 /사진 뉴시스